

배포 2026. 9. 24.(목)

타슈켄트한국교육원 도서관 전면 개편 및 스마트 교육 환경 구축

- 100% 바코드 전산 출납 시스템 도입으로 도서관 이용 편의성 개선
- 신규 기증 도서 확충 및 ‘청소년·인기 도서’ 서재 신설

대한민국 교육부 재외교육기관 타슈켄트한국교육원(원장 이영웅)은 2026학년도 신학기 개강에 맞춰 원내 도서관의 환경 개선과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현지 학생과 교민들을 위한 스마트 도서관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서관 정비 사업은 최근 우즈베키스탄 내 한국어 학습 열기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대함에 따라, 교육원 도서관을 단순한 도서 보관 공간을 넘어 ‘디지털 기반의 열린 한국 문화 학습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되었다.

■ 100% 바코드 전산 출납 시스템 도입으로 이용 편의성 제고

이번 개편의 가장 큰 핵심은 100% 전산화 시스템 도입이다. 기존의 수동 대출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전 도서에 표준 바코드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대출 및 반납 절차가 한층 간소화되고 신속해졌다.

교육원은 보유 중인 모든 장서의 데이터베이스를 새롭게 정비하고 회원 관리 시스템과 연동하였다. 이용자들은 회원 번호만으로 빠르게 도서를 대출·반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도서 검색과 대출 가능 여부도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 신규 기증 도서 유치 및 맞춤형 서재 신설

타슈켄트한국교육원은 도서관 이용객들에게 한층 풍성한 읽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외 기관 및 유관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대규모 신규 기증 도서를

유치했다. 기존된 도서에는 한국어 교육 교재, 한국 현대 문학, 역사·문화 교양서뿐만 아니라 교민들을 위한 도서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용자들의 이용 패턴과 연령대별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청소년 도서 전용 서재’와 ‘인기 도서 전용 서재’를 별도로 조성했다. 청소년층 학습자들이 즐겨 찾는 학습 만화, 청소년 문화, K-컬처 관련 도서 등을 전면에 배치하여 도서 선택의 편의성을 높이고 독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공간을 재구성했다.

■ 현지 한국어 교육 및 문화 확산의 핵심 플랫폼 역할 기대

타슈켄트한국교육원은 이번 도서관 정비를 계기로, 수강생뿐만 아니라 현지 교민,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이 도서관을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대상을 넓히고 관련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타슈켄트 주말학교가 운영되는 매주 토요일에는 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교민 대상으로 특별 개방하고, 자가 도서 출납 시스템을 이용하여 무인 운영한다. 앞으로도 타슈켄트한국교육원은 도서관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도서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붙임】 타슈켄트한국교육원 도서관 개편 현황 사진

기관	타슈켄트한국교육원	책임자	원 장	이영웅 (+998 71-291-8182)
		담당자	부원장	김병철 (+998 71-291-8182)
			행정실장	정 타찌아나 (+998 71-291-8182)
			운영지원팀	강 안나 (+998 71-291-8182)





도서 정리 모습



도서 정리 모습



도서 정리 모습



도서관 열람실 전경



도서 바코드 및 대출·반납 스캐너



게시판 및 정기간행물 코너